

퓨처센스 주식회사

기사보도 위한 인터뷰 관련 회의

회의 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회의 시간 : 10시-12시

회의록 작성자 : 정라현, 꺾나리

참석자 총 7명

퓨처센스: 안다미 대표, 이은영 팀장, 김현승 기술이사, 유동원CFO, 정라현 PO, 최상은, 꺾나리

외부 참석자: 인사이트코리아 남빛하늘 기자

회사소개

퓨처센스(FutureSense)는 식품제조업체 및 글로벌 식품공급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Food4Chai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엄격해지는 글로벌 식품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력관리 서비스'와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성 및 관리효율을 높이는 '재고/로스율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Food4Chain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증빙이 필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퓨처센스는 식품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식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비스관련 소개

Food4Chain은 엄격해지는 글로벌 식품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력관리 서비스'와 생산성 및 관리효율을 높이는 '재고/로스율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력관리 서비스'는 FDA, EU 등 식품이력추적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로, FDA에 대한 최신 규제소식을 받아보고, FDA가 요구하는 공급망 데이터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기반 Chain-of-Custody 데이터 연속성 기술을 통해 식품 공급망의 데이터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관리 및 이력추적 될 수 있습니다. '재고/로스율 관리 서비스'는 Mobile을 통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장의 KPI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로트별 히스토리를 통해 리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현재 달래해장, 순수뽕밥 등 유명 프랜차이즈 그룹 지주사를 고객으로 하고, 1200개

식품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인천시 식품제조연합회와 협업하여 K-Food의 수출경쟁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23년 매출이 3조원이 넘는 중국 내 SAP 골드파트너와 MOU를 맺고, 맥도널드, 피자헛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식자재의 식품이력추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5개국 8개 기업과 MOU를 맺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MOU 이후 본격적인 기술 및 사업 논의에 대한 미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플랫폼 API와 SaaS를 기반으로 빠른 사업 확장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2024년 제품 출시 후, 미국의 대형 K-Food 수입업체들과 협업 논의를 시작하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EU와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아시아 기업들의 농식품에 대해 미FDA 규제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식품이력추적 서비스로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 과학기술혁신 펀드를 통해 유럽 수출입 식품규제 대응 서비스도 추가 예정입니다. 퓨처센스 Food4Chain은 글로벌 식품 이력추적 공급망 데이터 관리와 식품 제조공정-유통 효율화를 지원하는 산업에 내재화된 Blockchain과 AI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